

종자소독으로 예방효과 높이자

—법씨 종자소독 요령—

홍 보 부

폭발하는 인구를 굶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연구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도 획기적인 방법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증수방법은 각종 농작물을 병해충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보호하는데 있다.

더우기 각종 병충해는 발병이나 발생 후에 약제로 방제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비용이나 노동력 절감은 물론 효과도 정확하게 나타난다.

벼농사도 법씨소독을 실시하여 법씨에 붙어 있는 각종 병균을 없애도록 하여 건모를 육성토록 해야한다.

법씨에 많이 붙어 있는 병균은 도열병, 키다리병, 깨씨무늬병등으로 이러한 병균을 없애기 위하여는 법씨를 담그기 전에 약제소독을 철저히 해야한다.

시험에 의하면 소독한 법씨에서는 거의 모든 병원균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나 소독하지 않은 법씨는 도열병균 56%, 깨씨무늬병균 100%, 키다리병균이 52%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 법씨소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듯 중요한 법씨소독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병충해의 피해를 자초하는 결과로 후일에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결과가 되기 쉽기도 한것이다.

소독 효과가 높은 병해종류

도 열 병

도열병균은 병에 걸렸던 짚 및 화분과 잡초등에서 겨울을 지내는데 병씨 중 약 13%는 병균이 붙어 있으므로 소독을 하지 않고 파종하게 되면 못자리에서 활동을 시작하여 어린모에서부터 병이 발생하게 되어 피해를 받게 된다.

깨 씨 무늬 병

병씨에 붙어있는 병원균은 2~3년간 생존하며 싹이 튼 후부터 수확기까지 발병한다. 병에 걸린 묘는 땅가 부분이 갈색으로 변하며 키가 크지 않고 결국은 말라 죽게 된다.

키 다리 병

이병의 특징은 모가 지나치게 키가 크게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건전한 모의 2배에 달할 때도 있다.

모낸 후 잎, 줄기, 병씨에도 발생하는데 씨앗소독을 철저히하고 병에 걸린 모는 뽑아서 깊숙히 묻도록 한다.

묘판말기에는 질소질비료가 부족하여 발병되는 때가 있으나 본답에서는 모래논에서 특히 많이 발생되며 이삭이 갠후에는 물을 너무 일찍

뺐을 경우에도 많다.

약제별 소독요령

종자소독약 유제 3호 : 티시엠피유제 (부산-30)

이 약제는 유기유황계 종자소독약제로 물에 타는 희석배수를 1,000배로 할 때는 물 20l(1말)당 20ml짜리 약 1병을 천천히 따라가면서 막대기로 저어주어 약액이 고루 잘 섞이도록 한 후 병씨 10kg(1말) 기준으로 담그되 병씨가 약물에 충분히 잠기게 하여 12시간 동안 소독한다. 소독이 끝나면 건져내 맑은 물로 씻은 후에 병씨 담그기를 실시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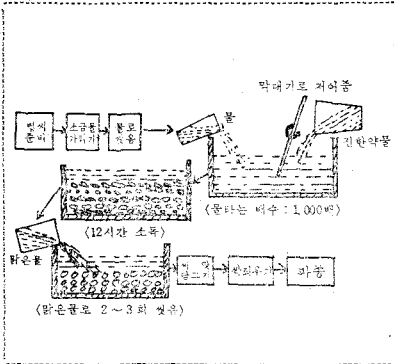
약액의 온도가 섭씨 10도 이하에서는 효과가 떨어지므로 사용을 피하고 소독 후 맑은 물로 씻지 않으면 약해의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2~3회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한다.

또한 소독하여 파종하고 남은 씨앗은 직접 가축사료나 식용으로 사용하면 위험하므로 사용을 피해야 하며 원액이나 희석액이 피부에 묻었을 때는 비눗물로 잘 씻어내도록 한다.

만약 파종기가 닳아와 병씨소독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희석배수를 500배로 조절하면 된다.

즉 물 20l당 약을 40ml(20ml 약 2병)를 넣고 4시간 동안 담근 후 깨

◇ 소독요령



끗한 물에 씻은 후 볍씨담그기를 실시하면 된다.

종자소독약 수화제 2호 : 지오람수화제 (호마이)
 종자소독약 수화제 1호 : 베노람수화제 (벤레이트티)

수화제는 먼저 작은 그릇에 필요한 양의 약가루를 넣고 물을 조금 부어 잘 휘저어 풀 같이 만든 다음 다시 필요량의 나머지 물을 부어 약물을 만든다. 수화제 1호와 2호도 이와같은 방법으로 약물을 만드는데 물 20ℓ(1말)에 약 1봉(100g)을 넣으면 볍씨 10kg을 소독할 수 있다.

약물의 온도는 10~30°C 범위로 하고 소독시간은 24시간이며 소독중에는 하두번 정도 저어주어 약이 고

루 문도록 한다.

소독한 후에는 씨앗을 건져 그늘에서 6~24시간 말린 후에 씨앗 담그기를 한다.

수화제 사용시 주의할 점은 이들 약제는 침투성 살균제가 아니므로 소독중에는 가급적 물을 갈아 주지 않을 것이며 소독한 볍씨는 물에 씻지 말고 그늘에 말린 후 볍씨 담그기를 하되 씨앗 담그는 기간 중에도 자주 저어주지 말고 가급적 물을 갈아주지 말며, 부득이 갈아주어야 할 때는 살며시 갈아 주도록 한다.

또한 사용하고 남은 약물은 하천이나 저수지에 버리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한다.

약제사용량조견표

종자량	물	물에 타는 약의량(원액)	
		수화제 1호 (벤레이트티)	수화제 2호 (호마이)
1kg	2ℓ	10g	2g
2	4	20	4
3	6	30	6
4	8	40	8
5	10	50	10
6	12	60	12
7	14	70	14
8	16	80	16
9	18	90	18
10	20	100	20